



지방자치 정책 Brief

2022. 6.
NO.143

지방자치단체 데이터기반행정 정착을 위한 고려사항

이재용 부연구위원

주요내용

지방자치단체와 데이터기반행정

- 데이터기반행정(data-driven public administration)은 증거기반 정책(evidence-based policy)의 일환으로, 기존의 의사결정자의 주관적 판단에서 벗어나 전문지식·통계모델 등 데이터에 기반한 객관적 정책 결정 방식을 의미함
- 2020년 「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의 제정 및 시행에 따라 데이터기반행정의 추진이 본격화되었음
- 데이터기반행정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관점의 확장임
 - 중앙부처 주도 정책추진에서 벗어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효과적인 데이터 관리 및 데이터기반행정 정착에 중점을 둠

데이터기반행정 주요 고려사항

- 제도적 기반 : 시스템 유형, 조직 및 인력, 추진체계, 제도 등의 확보
- 협업 : 중앙부처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, 민간 등 다양한 주체와의 협업체계 구축 및 개선
- 데이터 활용 :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적극적 데이터 활용
- 데이터기반행정 준비 : 자치단체 보유 데이터의 관리, 데이터 관련 이해 및 인식 수준 개선 노력

데이터기반행정 정착 방안

- (기반 차원) 데이터 분석 및 공유를 위한 시스템 확보를 통해, 자치단체 차원에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 구축이 필요함
- (운영 차원) 데이터기반행정 담당 조직 및 인력의 전문성 확보, 타 기관과의 데이터 공유 실효성 확보를 위한 데이터의 표준화가 필요함
- (관리 차원) 데이터 활용 업무 수행에 대한 공무원들의 부정적인 인식 개선 및 업무 수행에 있어서 실질적인 데이터 활용을 위한 역량 강화 교육 프로그램 제공이 필요함

01

데이터기반행정 도입 배경



데이터기반행정 도입의 필요성

- 데이터기반행정은 세계적인 추세로써 기술 발전과 함께 행정혁신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로 인식됨(서재호, 2020)
- 객관적·과학적 근거 바탕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통해 공공의 책임성 강화 및 정부에 대한 시민의 신뢰도 향상이 기대됨
- 정책집행 범위의 확대를 통해 능동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(성욱준, 2016)



데이터기반행정 관련 인식 및 상황 개괄

- 공공데이터 관리 및 활용에 대한 이해 부족, 새로운 의사결정 방식 수용에 대한 보수적·부정적 인식이 존재함(송효진·황성수, 2014)
- 중앙부처 주도 데이터 정책 추진에 따른 중앙과 자치단체 간 데이터 관련 이해, 인식, 역량 편차가 발생함(최승범, 2016)
- 행정서비스 제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주도적·적극적 데이터 운용이 부족함(임광혁, 2016)



데이터기반행정 추진의 전제조건

-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데이터 관련 현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서의 정책 추진은 제한적임
- 다각적인 관점에서 데이터기반행정 정착에 필요한 주요 요인을 설정하고, 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데이터 정책추진 관련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함

02

지방자치단체 데이터기반행정 현황



제도적 기반

- 데이터 관련 시스템 유형
 - 기초자치단체 운영 데이터 관련 시스템 유형 중 데이터 수집·구축용 시스템이(69.7%) 가장 많았고, 데이터 분석(11.1%), 공유·관리(5.1%), 가공·결합(3.0%), 복합(2.0%) 시스템 순으로 나타남
 - 기초단체 관련 시스템 대비, 분석·활용 등 심화단계 관련 시스템 운영은 상대적으로 부족함

• 조직 및 인력

- 데이터기반행정 담당 과 단위 조직에는 정보·통신·데이터 관련 부서(32.4%) 이외의 데이터와 직접적 관련이 상대적으로 약한 행정(21.3%), 도시(9.5%), 홍보(7.8%), 총무(7.4%) 관련 부서들도 있는 것으로 나타남
- 전체 데이터기반행정 담당 인력 중 전담 인력의 비율은 16.7% 정도로 겸직 인력 운용방식이 다수를 차지함



협업 현황

• 데이터 제공기관

- 주체 유형에 따른 제공 데이터 분석 결과, 타 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데이터가 가장 많았으며(50.6%), 다음으로 중앙부처(36.6%), 공공기관(11.9%), 민간(0.9%) 순으로 나타남
- 공공·민간분야 주체들 간 데이터 공유·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, 공공분야 주체들과의 교류가 상대적으로 많음



데이터 활용 현황

• 정책 유형별 데이터 활용

- 정책 유형에 따른 데이터 활용은 정책참고용(49.3%)이 가장 많았으며, 다음으로 현황 및 문제 파악(36.0%), 정책 수립(6.7%), 제도개선(5.3%), 의사결정(2.8%) 순으로 나타남
- 정책참고, 현황 및 문제 파악 등 정책 결정 이전의 기초 단계에서의 데이터 활용이 대부분임

• 정책 분야별 데이터 활용

- 정책 분야에 따른 데이터 활용은 지역개발·환경(29.1%), 안전·생활·치안(22.9%), 교통(12.8%), 문화·관광(10.8%), 복지(8.7%), 보건(6.0%), 교육(5.7%), 마을공동체(2.8%) 순으로 나타남
- 다양한 정책 분야에 데이터 활용 시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



데이터기반행정 준비 현황

• 비정형 데이터 현황

- 관측된 비정형 데이터의 유형은 공간정보(59.5%), 텍스트(10.3%), 영상(8.7%), 이미지(6.3%), 문서(3.2%), 음성(2.4%)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남
-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 비정형 데이터의 활용 및 공유 가능성 제고 노력이 필요함

• 교육 현황

- 교육 프로그램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유형은 공공데이터 관련 교육(60.7%)이었으며, 다음으로 빅데이터(31.1%), 4차산업혁명(5.9%), 플랫폼(0.9%) 순으로 나타남
-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구성원들의 인식 및 이해 수준 제고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정기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며, 공공데이터, 빅데이터 관련 교육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확인됨

03

데이터기반행정 정착 방안



기본 차원

- 데이터 관련 시스템의 경우 데이터의 수집·구축에 집중되어 있는 현재의 체계에서 개선이 필요함
 - 데이터의 분석·활용 등 심화단계를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
- 자치단체 차원에서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 구축이 요구됨



운영 차원

- 데이터기반행정 담당 조직 및 인력의 전문성 확보가 필요함
 - 기존 데이터 관련 업무 수행 부서 통합 또는 독립 부서의 신설 등을 고려할 수 있음
- 타 기관과의 데이터 공유를 위한 데이터 표준화가 필요함
 - 자치단체 독자적인 데이터 정형화 작업은 또다른 비정형 데이터를 양산할 수 있음
 - 중앙부처 차원에서의 데이터 표준화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



관리 차원

-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공무원들의 인식 개선 교육이 필요함
 - 데이터 기반 업무 수행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(예. 불필요한 업무의 추가적 부과)은 해당 정책에 대한 구성원의 소극적인 자세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음
 - 공무원 대상의 인식 전환 교육 프로그램 제공 검토가 필요함
-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공무원들의 역량 강화 교육이 필요함
 - 구성원들의 데이터 기본 개념, 활용 등에 대한 이해 수준 제고를 위한 지원이 필요함
 - 현재 자치단체에서 중심이 되고 있는 공공데이터 및 빅데이터 관련 교육 이외에, 데이터의 활용·분석·관리 등 데이터 기반행정과 관련된 실질적 역량 강화 교육 프로그램 제공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

참고문헌

서재호(2020)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데이터기반 행정 영향 요인에 대한 탐색적 연구: 자치구 공무원의 인식조사를 토대로. 지방정부연구. 23(4), 445-464.

성욱준(2016) 공공부문 빅데이터 정책 활성화 연구. 한국정책학회보. 25(2), 125-149.

송효진·황성수(2014) 정부 3.0 추진에 따른 공공데이터 개방과 지방정부의 방향성 모색: 공공데이터법에 관한 이해와 개방 사례를 중심으로. 한국지역정보학회지. 17(2), 1-28.

임광혁(2016) 지방자치단체의 경제, 사회, 문화 통합 DB 구축 방안.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. 16(6), 441-449.

최승범(2016) 지방자치단체 빅데이터의 활용트렌드와 활성화 조건에 관한 연구. 사회경제와 정책연구. 6(1), 177-205.

내용문의

이재용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행정혁신실 부연구위원(033-769-9851, jlee@krila.re.kr)

지난호
보기